

26. ③

- 27. ②
- 28. ①
- 29. ①
- 30. ① 藏於精而象於地→藏於陰而象於地
- 31. ③
- 32. ④
- 33. ③
- 34. ③ 食積 -> 脾虛
- 35. ①
- 36. ⑤
- 37. ④
- 38. ②
- 39. ① 약용부위는 宿存化萼 (꽃받침)
- 40. ⑤

[참조] <靈樞 通天> 五態人論 (사상체질과 다른 개념)

1) 太陰人

太陰人은 그 형상이 어두운 흑색으로, 키가 크고 오금을 구부리지 않는다. 피부가 검고 키가 크지만 겸손하게 보인다. 太陰人은 탐욕스러우면서 인자하지 않으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주도면밀하고 중후한 척하며, 마음이 억울해도 드러내지 않고,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 행동하여 느릿느릿하다. 太陰人은 외부 사물을 인식함에 유행을 쫓지 않고, 시대의 변천에 부응하여 자기의 사상·관념과 주장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며, 형세변화의 동향을 심각하게 살핀 후에야 비로소 자기의 사상·관념·주장 및 행동을 확정한다.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함에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비록 반응은 매우 느리지만 객관 사물에 대한 인식이 매우 깊으며, 행동 또한 비교적 신중하다. 정서적으로는 자아에 대한 통제력이 강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여 회로를 표현하지 않는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 재물이 들어오는 것은 좋아하지만, 쓰는 것은 싫어하며, 재물을 모으는 것에 사회적인 도덕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매우 겸허하고 깨끗한 듯이 보이나 속 마음은 매우 음험하다.

2) 少陰人

少陰人은 그 형상이 맑고 깨끗하나, 음험하여 본래 음침하면서 잔인하다. 서면 위험할까, 걸으면 매복이 있을까 두려워 행동거지가 살금거리고 수상하다. 少陰人은 작은 것을 탐내는 도둑 심보로 타인의 손해가 자신의 이득이 되듯하고, 상처도 잘 입고 해치기도 잘하며, 타인의 잘됨을 싫어하고, 마음이 급하고 은덕이 없다. 타인의 재난을 즐거워하고 시기심이 많고 동정심이 없다. 남이 영화로운 것을 보면 오히려 반대로 분노하며, 마음에 남을 시기하여 미워하면서 은혜를 모른다.

3) 太陽人

太陽人은 그 형상이 의기양양하면서 자만하여 우쭐대고, 가슴과 배를 쑥 내민다. 太陽人은 높은 곳을 좋아하고, 큰일을 말하기 좋아하며, 능력은 없으면서 허풍을 치고, 일처리에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으며, 항상 제멋대로 해서 일이 비록 실패하더라도 후회함이 없다. 太陽人은 거주 환경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고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머무는 곳마다 편안해 하고, 이들이 일에 임할 때는 반드시 기백이 있으나, 득의양양하며 자존망대하기 쉬운 성격이다. 뜻이 비록 원대하나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이상만 높으며, 과장되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큰일을 호언하나 실제 능력은 없어 빈말인 경우가 많으며, 성취해 내는 일 또한 적다. 의지적으로는 고집이 세어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며, 자신감이 매우 강하여 스스로 고결한 체하여 일처리가 가볍고,

행동거지가 경솔하고 조급하며, 항상 행동의 옳고 그름을 고려하지 않아서 일이 비록 여러 번 실패하더라도 조금도 반성하고 후회하는 의사가 없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일을 함에 유시무종하기 때문에 성사는 적고 실패가 많다.

4) 少陽人

少陽人은 그 형상이 나설 때는 머리를 치켜들기를 좋아하고, 행동할 때는 몸을 흔들기를 좋아하여, 그 양팔과 팔꿈치가 항상 등 밖으로 튀어나온다. 少陽人은 자신을 귀중히 여기고 작은 관직이라도 있으면 득의양양하고, 사교적인 것을 좋아하지만 내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을 싫어한다. 세심하고 자기 자량을 즐기며, 외 교적인 것을 좋아하여 착실히 일하지 못한다. 少陽人은 객관 사물에 대해 오랜 시간 주의를 집중하여 살피고 또 살피 매우 정밀하게 인식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그 능력이 비교적 뛰어나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경향이 있으나, 스스로 귀하게 여겨 자만 등의 교만한 정서가 생기기 쉽다. 즉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하여 아주 작은 관직이라도 맡게 되면 곧 교만해지고 스스로 고무된다. 다른 사람과 교제는 잘하나 사람을 대하는 것이 태만하여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드물다. 의지적으로는 뚜렷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5) 陰陽和平人

陰陽和平人은 그 형상이 여유만만하고 온화하면서 존엄하며 화기애애하고 눈빛이 선량하고 확고부동하여 못사람들이 다 군자라 한다. 陰陽和平人은 처세가 안정되어 두려워함이 없으면서 희열함도 없고, 온화하게 사물에 순응하여 어떤 이와 다투지 않으면서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 사람들이 존중하면 겸손해 하고, 말로 타ир되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않으니, 이를 지극한 다스림이라 할 수 있다. 陰陽和平人은 객관 사물의 인식능력이 뛰어나 사물의 일반 규율을 장악할 수 있으며, 사물의 본질을 능히 인식할 수 있다. 또한 근면하며 배우기를 좋아하고, 사유가 고도로 영민하여 객관적인 형세의 발전변화에 부응하여 자기의 사상이나 개념과 주장을 개선 변화시킬 수 있으며, 임기응변할 수 있다. 의지적으로는 주관에 있어 동요되지 않으며, 재물이나 힘으로 그 마음을 굴복시킬 수 없고, 이익이나 부귀도 그 마음을 침범할 수 없다. 성격적으로는 행동거지가 매우 안정되고 점잖으며, 침착하고 여유가 있고, 주위환경 변화에 순종하고 잘 적응한다. 또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항상 환한 얼굴로 약간의 미소를 머금고 있으며, 그 눈빛이 매우 온화하고 선량하다. 언어와 행동이 바르고 흐트러짐이 없으며, 다른 사람과 고집을 부리며 맞서거나 명예를 다투어 힘으로 이기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하며, 낮은 자리에 처해서도 아첨하지 않는다.